



'쌍방향 소통'에 현대사회의 모든 해답 있어

고은 '소통'을 말한다

2010년 새 해가 밝았다. 온 인류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며 흥분하고

열광했던 해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강산이 한 번 번하는 세월이다. 지난 10년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중생계의 10년이 긴 시간인지 찰라에 불과한지 중생은 알지 못한다. 다만, 지나 온 시간을 돌이켜 다가오는 시간을 보다 경건하고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이다. 2010년 경인년을 맞아 우리 시대의 '움직이는 선지식' 고은 선생을 만났다.



-시간은 오고감이 없다는 말이 새롭습니다. 경인년, 호랑이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생각 해 보면 호랑이는 참으로 많은 측면에서 우리 민족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 뽀아겠습니까? 12지의 동물들이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열 두 동물은 실재하는 것과 상상 속의 동물로 나눠지겠지만,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그 동물들은 사람과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인간 영역에 포함돼 인간의 확대된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물자체의 존재감과 존엄성보다는 인간의 심성을 반영한 나머지 인간의 권속으로 여겨지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호랑이 해인데,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이들에게서 호식(虎食) 상이 보이면 그 아이를 주명영장을 위해 절에 팔기도 하고 출가를 시키기도 했지요. 조선 후기까지도 한양의 궁성에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것이 호랑이의 실상이지만 12지에 포함된 호랑이는 할아버지의 시자노릇으로도 표현되고 속담 속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산신도에서는 산신의 종자이기도 하지요. 호랑이의 웅맹성과 무서운 능력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게 아니라 인간의식안으로 불러들여 공포를 제거한 것입니다. 호랑이의 정체성을 내면화함으로써 인간과 호랑이를 동일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물을 자기화하여 삶의 양상으로 확대해온 고대의 상상력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면화된 호랑이의 웅맹성과 제약적 권능이 오늘 우리의 우리에게 전이되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세상이 좀 더 밝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호랑이의 기상이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계층만 펼쳐 일어나는 것으로 작용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우리 민족 나아가 온 인류가 평등하게 끌고루 힘찬 기운으로 일어서는 해가 돼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평등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방위적으로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소통을 화두로 삼아 왔습니다. 새 해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소통은 국가형태나 사회제도의 형식을 초월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가치행위입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느 집단이나 사회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한 사회가 기능하는 근본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와 남매 사이에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가정의 확대된 개념이 사회이고 국가라고 본다면 소통되지 않는 사회 국가는 끝내 소통이 막혀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소통은 언제나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지배자가 피 지배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다시 말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과거 봉건사회나 왕권국가에서도 훌륭한 왕은 백성들

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않고 성군이 된 예는 없지요. 원효 스님을 생각해 보세요. 동시대에 훌륭한 스님이 많았지만 유독 원효 스님이 지금까지 더 사랑 받는 것은 그는 민중과 함께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민중 속에서 쌍방향 소통을 했던 원효였기에 그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부처님도 쌍방향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언제나 중생들이 원하는 것 아파하는 것 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승으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과정 자체가 소통의 역사인 셈입니다.

-요즘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사회의 구성 계층이 다양화 되는 세상에서 소통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분할 정도로 소통의 토대가 잘 마련돼 있습

니다. 당연합니다. 불교도 소통에 목말라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말이 물을 먹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말에게 물이 좋다는 것을 알리고 먹기를 권유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행태에서 장대를 들고 감을 따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희로애락을 함께 해야 합니다. 불교는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종교 아닙니까? 행여 수행이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서구는 불교를 매우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래전에 서천에서 온 불교를 만날 때처럼 말입니다. 니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양의 붓다'라고 까지 자처했고 앞으로 불교가 서구로 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었습니까?

한국불교는 대중 속으로 보다 더 깊이 들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자칫 시대착오 없이 태만하면 우리의 전통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할 뿐더러 서구로 갔던 불교가 우리를 압도하는 경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주어진 주어진 곳으로 달려가야 하고 가서 대중과 함께 항우해야 합니다. 대중과 하나로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자기의 타자화' 시대입니다.

-불교의 역사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중생이 소통해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한국불교는 대중 속에서 '자기의 타자화' 이뤄야

일상화된 기도해야 자기변혁시키고 삶의 동력 줘

니다. 인터넷 세상에서의 소통경로는 무한정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현실 소통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자유분방한 소통의 길이 개척되고 있는 겁니다.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의 의식도 뜨겁게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문학은 어떤 입장에서 서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난 오랜 시기에 걸쳐 문학은 행복했습니다. 문학이 작가와 독자로 구성돼 있다면 과거는 작가에서 독자로 일방적인 소통이 이뤄졌었지요. 문학의 주체가 할 작가의 작품이 객체가 되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감동형식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객체(독자)가 주체(작가)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쌍방향 소통에 대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작가의 새로운 모습이 다듬어져야 하는 변화의 선언인 것입니다. 문학의 1차적 유희론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끝까지 함께 할 문학이 소통의 방식에 변화를 요구받는 것은 문학 생산자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준 것입니다. 나는 고전적인 문학의 소통방식이 깨지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인터넷 속에서의 변화는 5년 내지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문학 자체의 본원적 의미는 버려져질 수 없습니다.

-한국의 불교계에도 소통의 방식에 대한 답안이 형성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소통이 되지 않고 독선화 관념화 되는 불교는 박물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계종의 경우를 보면 출가를 해 구도에 대한 치열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가자의 입장에서 지키는 치열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만에 하나 소통불가와 고착성을 낳는 경우를 경계해야지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한 번의 출가로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출가를 하고 구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출가하는 것, 출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출출출가가 요구되기가 연속돼야 합니다. 출가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부처님도 끝없이 출가를 했습니다. 돈오와 점수를 얘기하는데, 돈의 연속으로서의 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오는 일회성이 아니라 수 없이 되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의 수없는 되풀이로서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가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재가자들도 끝없이 발심하고 또 발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3일 기도 7일기도 등은 하나의 형식이고 방편일 뿐이고 끝내는 일상화돼야 합니다. 금생에 다 못하면 내생에 한다는 각오로 일상화된 기도여야 자기를 변혁시키고 삶의 동력을 주는 겁니다. 점점이 이어져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지극한 신행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세로부터 이웃과 사회가 함께 소통될 때 진정한 붓다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담-임연태 부국장 · 사진-박재원 차장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은누리에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 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한국의 청정 전통 선맥을 계승합니다.

선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21세기 정신문명을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 재단법인 선학원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송 (02)734-3410